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투명하게 공개를”

광주경실련, 평가기준 문제제기... 시, 민관 거버넌스 구성 공정성 강화키로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가 추진중인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사들이 공모 취소소송을 내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문제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정량평가 및 심사위원회·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공개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 평가권한 보장 ▲개발원가 공개 및 개발이익 환원 방안의 평가기준 포함 등을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 방침과 관련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시가 실시하는 정량평가, 심사위원회의 평가, 시민평가단의 평가 점수 등을 전면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경실련의 입장이다.

광주경실련은 또 “광주시가 실시하는 정량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은 심사위원회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광주시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제공해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평가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제시한 평가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점수가 당락 또는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편차를 크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점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 중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평가 기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 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개발 원가를 공개하고 개발이익 환원 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도시공원 축소와 고층·과밀 개발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6일 1단계로 수량, 마름, 송암, 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한 사업 시행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공고했으며, 오는 9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 두각·공군 출신 합참의장 파격 육군, 육사 기득권 허물기 신호탄

문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

문재인 정부가 8일 단행한 첫 군 수뇌부 인사는 23년 만에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에 내정하는 등 ‘파격 인사’였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군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합참의장에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한 것이다. 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자 역대 두 번째 공군 출신 의장이 된다.

정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게 군 안팎의 해석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군의 길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

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병력 위주의 군 구조에서 탈피해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무기 체계 중심의 군 구조를 구축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군사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해군 출신 송영우(68·해사 27기) 국방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방어에 집중하고 미 중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반격하는 기존 지상군 중심 작전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해상·공중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부를 깨물고 속전속결로 승리를 거두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의 ‘투톱’ 체제로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장성 출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임명과 관련, 과거 보수 정권 시절의 호남 군 인사 확대 시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강경화 “北 외교적 고립 절감”



8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50주년 기념식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마닐라를 찾은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은 한 차례 조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절감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시내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자신의 다자외교 데뷔무대였던 ARF 참석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은 회의 참가 시점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보리 결의에 반발하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욱 더 고립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성명으로는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북한도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많은 국가와 양자회담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부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외교장관이 아세안을 대표해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아세안 외교관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으길 (북한과) 일대일 양자 회담을 하면 (대북 경고) 메시지가 희석되니 필리핀 장관이 대표로 만나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ARF가 개최돼 북핵 위협에 대한 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식 속에 회원국들이 모였다”며 “3대 안보 현안인 북핵, 남중국해, 테러 문제 중 압도적으로 북핵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소개한 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북핵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이유정 (49)
서울
정의고, 이화여대 법학과, 법학박사
사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법 북부지청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원 구성위원(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이대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 박 전 재판소장 퇴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또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순천 출신 박경서 교수, 적십자사 회장 선출

대한적십자사(한적) 신임 회장으로 순천 출신의 박경서(78·사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출됐다.

한적은 8일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박 교수를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한적 명예회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29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아직 인준이나 공식 취임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순천 출신의 박 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인도 센나이 한림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와, 독일 뉘른베르크 에든버러대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 1세대 인권전문가인 박



회장은 2001년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에 임명돼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대사직을 수행했다. 국내 인권 관련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 박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창설멤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냈고, 통일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선진국형 적십자사, 평화, 공동복지, 자원봉사 등에 크게 기여하고 북한을 포함한 평화가 필요한 곳에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례 묵념에 ‘민주화영령’ 추가될 듯

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 때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만 주 내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개선했다.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2017. 9. 5.(화) 08: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9. 9.(토) 08: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9. 9.(토) 14:10 (특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 9. 7.(목) 08:10 (중급반) ·금요일 오전반: 2017. 9. 8.(금) 08: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9. 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사특기회 부여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사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모집기간: 2017년 8월 29일(수) ~ 2017년 9월 7일(목)
·교육기간: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 강 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8월 25일(금)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수 강 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e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